

안철수 “제보조작 나도 충격 정치적·도의적 책임지겠다”

정계은퇴 질문엔 “당 위해서 할 일 고민할 것” 즉답 안 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12일 '문준용 제보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파문이 불거진지 17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 조작 사건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안 전 대표는 또 "이전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후보였던 제게 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다. 그는 다만 정계은퇴 가능성에 대해선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깊이 고민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며 "선거 과정에서 묵묵히 헌신해주신 당원 여러분, 동료 정치인들께 사과드립니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심적 고통을 느꼈을 당사자에게도 사과드립니다"며 당사자인 문준용씨에게도 사과를 표명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구속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당이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또 제보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의심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뚜박이 유세 중이었다"며 "인터넷 생중계가 24시간 계속됐다"고 일축했다.

‘불안한 바른정당’...1석만 빠져도 원내교섭 미달

군소정당 내려 앉으며 정의당과 같이 비교섭단체 정당 돼...이혜훈 대표 고민 커져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혹시 한명의 의원이더라도 자유한국당 등 다른 정당으로 빠져나갈 경우 원내교섭단체(20석) 구성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만일 이탈자가 생겨 원내 의석이 19석 이하로 떨어질 경우 바른정당의 총석수는 상상 외로 크다. 바로 비교섭단체가 되면서 원내 뉴스는 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이 독자지하게 된다. 바른정당은 군소정당으로 내려 앉으며 정의당과 다를 바 없는 비교섭단체 정당이 된다.

정치적 수모를 넘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은 물론이거니와 보수정당의 적자 자리를 놓고

다루는 자유한국당에게 규모 면이나 정치적 정통성 면에서 모두 뒤지게 된다. 그야말로 사면초가 신세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 등 신 지도부는 당의 외연확장도 중요하고 집권여당을 겨냥한 야성(野性) 강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의 일이 집단 단속이다. 한명이라도 당을 떠나지 않게 단단히 문단속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기에 이 대표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의 최측근 의원들을 주요 당직에 임명하면서 분위기가 더욱 심상치 않아졌다. 홍 대표가 바른정당의

원들에게 되돌아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대표 등 지도부는 연일 자유한국당에 대한 공격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난파선 한국당은 바른정당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하태경 최고위원도 "X물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리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들 지도부의 자유한국당을 향한 비판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바른정당의 한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옮겨 간다는 등의 소문이 퍼지고 있고 특정 의원 이름도 여의도에서 나돌고 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더욱 곤혹스럽다.

서울=김윤호 기자



환담하는 문 대통령과 5부요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5부요인 초청 오찬이 열리는 청와대에서 오찬 전 차담회를 하고 있다. 김이수(왼쪽부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세균 국회의장, 문재인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관위위원장.

모습 드러낸 김무성, 현안 질문에 ‘손사래’

‘노루페스’ 논란 이후 한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해오던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이 12일 문재인 정부의 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고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전, 거짓과 진실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정책에 대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회 공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및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전 이외에 말은 말 안하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에 '홍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바른정당과의 합당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겠다"며 손사래를 쳤다.

한국당, 이준서 구속에 “제보조작은 결가지...본질은 문준용 취업특혜”

집권여당 대표 수사기관 지침 내리듯 발언 어불성설

자유한국당은 12일 법원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제보 조작은 결가지에 불과할 뿐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으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을 집요하게 몰고 늘어졌다"며 "집권여당의 대표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채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지침을 내리듯 발언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수사기관도 문씨에 대한 직접적 수사는 도의적이고 증거 조작에 국민의당 원선 개입 혐의점만을 강조하고 나서는 듯하다"며 "집권여당 대표 말 한 마디에 수사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진다면 그건 대통령과 집권여당을 향한 수사기관의 과잉충성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아울러 "검찰은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수사를 통해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의 실체부터 먼저 밝히기를 촉구한다"며 "민주당도 집권여당으로써 적폐를 청산할 책임감과 원조 조작당으로써 반성의 의미를 담아 이번 수사가 공정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중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윤호 기자

‘친박’ 서청원·김태흠, 류석춘 ‘살생부’ 올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진권'을 허락한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과거 작성했던 '살생부'에 친박계 만형 서청원 의원과 김태흠 최고위원 등의 이름이 올라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지난해 4·13 총선 참패 직후인 5월2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철학 없는 국회의원'의 이념 실태를 통해 본 국회의원의 이념 실상' 정책토론회에서 류 위원장이 발표한 발제문에 따르면 류 위원장은

새누리당 문제의원으로 총 59명을 꼽았다.

이중 20대 국회에서 당선된 사람은 28명이며 이중 김종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현역은 총 26명, 정당별로 보면 자유한국당 18명, 바른정당 7명으로 나타났다.

명단에는 친박계 서청원, 김태흠, 이완영, 이우현, 한신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이나 홍문종, 윤상현 의원 등

핵심 친박으로 분류되는 인물 일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우택 원내대표, 김태흠 최고위원, 홍문표 사무총장, 염동열 당대표 비서실장 등 현재 당 지도부도 일부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 비박계 중진 나경원 의원과 바른정당 탈당파인 김성태, 이근현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류 위원장은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에 대해 "새누리당을 이념의 무정부주의, 이념적 백치로 몰아간 주범이자 공모자들"이라며 "이들은 19대 국회를 무능력, 무책임의 불임 국회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세계인의 밥상
이제부터 한식이입니다.**

세계적인 한류의 열풍은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이에 따른 한식의 위상을 높여 놓았습니다.
한식의 세계화는 품격높은 한식문화의 조성과 우리음식의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스스로 한식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올바른 식문화의 정립과 한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한식의 세계화는 이루어 집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